■ 語文論文

연행록을 통해 본 淸代 地方秀才 齊佩蓮의 생애와 朝鮮使臣과의 교유*

林 侑 毅

（臺灣 國立政治大 韓國文化敎育센터 硏究員）

要約 및 抄錄

18세기말 19세기초 楡關 출신인 지방 수재 齊佩蓮은 1780년부터 1805년까지 조선 사절단이 의례적으로 지나가던 산해관 근처의 유관에서 조선 사신들을 맞이하여 필담과 교유를 청하였는데, 무려 20차례에 이른다. 본고는 먼저 연행록 기록을 통해 중국 문헌에서 보이지 않는 지방 수재 제패련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조선 사신들과의 교유 경위 및 필담 내용을 고찰하겠다. 아울러 제패련과 조선 사신과의 교유를 두 가지 시각으로 살펴볼 것이다. 하나는 제패련의 입장에서 그가 조선 사신을 만난 이유를 (1)조선 문인에 대한 欽慕, (2)개인 문집을 위한 請序 및 評點, (3)스승 홍양호에 대한 敬仰, (4)한반도 특산품 청구 등 네 가지 주제로, 또 하나는 조선 사신의 입장에서 그들이 제패련을 만난 이유를 (1)중국 정치 현황과 중국 학술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 (2)조선 역대 인물에 대한 중국인의 평가, (3)필담을 통한 서로 한문 실력 검증, (4)청나라 문인과의 가문 교유 계승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核心語: 齊佩蓮, 洪良浩, 생애 재구성, 중국 지방 수재, 조선 사신, 연행록

Ⅰ. 문제제기

연행록은 중국 元・明・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국의 사신들이 중국의 수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5-OLU -2250002).

도 연경(燕)으로 가서(行) 보고, 듣고, 느끼고, 주고받고, 체험한 일 등을 구체적이면서도 현장감 있게 기록한(錄) 것이다.[1] 언어적으로는 한문 연행록과 한글 연행록으로 크게 나뉘며, 형식적으로는 日記, 詩, 文, 錄 등의 다양한 양식을 포함한다. 연행록 연구는 『燕行錄選集』(大東文化硏究院, 1960)·『燕行錄全集』(東國大學校, 2001)·『燕行錄全集續輯』(東國大學校, 2008)·『燕行錄全編』(廣西師範大學, 2010) 등 연행록 자료 선집이 출판된 이후[2]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특정 주제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3] 조선시대 연행록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17·18세기 김창업·홍대용·박지원을 비롯한 북학파 인물들(이덕무·유득공·박제가·김정희 등)을 중심으로 그들의 연행 체험 및 중국 인식, 華夷觀의 변화, 실학사상, 청대 문인과의 교유 양상 등에 특히 주목하였다. 해외에서의 연행록 연구는 "주변에서 중국을 본다(從周邊看中國)", "역외한적(域外漢籍)" 등의 연구 추세에 발맞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의 선행 연구를 파악하지 못하여 중복된 연구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연행록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조선 문인이 일방적으

---

1) 연행록에 대한 정의는 임기중(2006), 「연행록의 전승」, 『연행록 연구(증보판)』, 일지사, p.9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연행록은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헌군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의미와 대단히 광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록유산이다. 연행록은 한국의 사신들이 원·명·청 왕조 때 중국의 수도에 나가서 그들이 해낸 일,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준 것, 받은 것, 체험한 것 등을 구체적이며 현장감 있게 써 놓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기록유산이다."

2) 연행록 정리 작업은 1960년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총31종의 연행록 자료를 수집하여 『燕行錄選集』을 출판할 때부터 2018년 현재까지 이미 15종의 연행록 자료 집성이 출판되었다.

3) 한중 학술계에 연행록 연구 현황을 소개하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陳尙勝(2009), 「近16年來中國學術界關於淸朝與朝鮮關係史硏究述評」, <當代韓國> 03期, 中國社會科學院韓國硏究中心; 裴英姬(2009), 「『燕行錄』的硏究史回顧(1933~2008)」, <臺大歷史學報> 43, 國立臺灣大學歷史學系; 李學堂(2010), 「燕行錄의 연구 현황과 전망 - 중국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50, 동방한문학회; 김영진(2011), 「燕行錄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試論」, <대동한문학> 34, 대동한문학회; 김현미(2011), 「연행록 문학 방면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대동한문학> 34, 대동한문학회; 최은주(2011), 「연행록 자료 집성 및 번역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34, 대동한문학회; 홍성구(2011), 「중국 학계의 연행록 연구」, <대동한문학> 34, 대동한문학회; 王禹浪·程功·劉加明(2012), 「近二十年中國『燕行錄』硏究綜述」, <哈爾濱學院學報> 第33卷 第11期, 中國哈爾濱學院 등이 있다.

로 중국 북경 명사를 찾아가 필담을 청하거나 시를 창화하거나 서발문을 청한 사실, 혹은 그들이 나눈 華夷觀・小中華・思明・北學思想・西學 관련 대화를 분석한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 필자는 조청 문인 교유의 연구에 있어 '三代神交'라는 주제 하에서 개인 간의 교유를 넘어선 가문 간의 교유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4]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조청 교유 사례를 발견하였다.[5] 곧, 18세기초 이후부터 중국 지방 수재가 북경으로 향하던 조선 사신들을 찾아와 필담이나 시 수창을 청하거나 서발문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그중 가장 적극적으로 조선 사신들을 만나고자 한 사람이 바로 18세기말 19세기초 楡關 출신인 지방 수재 齊佩蓮이다. 그는 1780년부터 1805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조선 사절단이 의례적으로 지나가던 산해관 근처의 유관에서 조선 사신들을 맞이하여 필담을 나누고 교유를 청하였다. 李在學(1745~1806)・李海應(1775~1825)・李基憲(1763~?)・洪良浩(1724~1802)・洪羲俊(1761~1841)을 비롯하여 그가 교유한 조선 문인은 28명에 달한다. 현전 중국 문헌에 전혀 이름이 전하지 않고 지방지 『臨楡縣志』에서도 기록이 보이지 않는 유관 수재 제패련이, 뛰어난 한문 실력을 갖추고 있을 뿐더러 조선 조정에서 청요직을 담당하고 있던 조선 사신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교유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선 사신이 일방적으로 중국 북경 명사를 방문한 교유에 중점을 둔 지금까지의 연행록 연구 추세에서 중국 지방 수재가 적극적으로 조선 사신을 만나 교유한 사례는 특히 주목을 요한다. 본고는 중국 문인을 한문 실력이 뛰

4) 林侑毅(2015),『冠巖 洪敬謨의 淸代 文人과의 交遊와 燕行錄 硏究』,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한문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5) 기존 연구에서 제패련의 이름은 종종 언급되었지만 아직 자세히 다루어진 바는 없다. 제패련의 이름이 언급된 한국・대만・중국의 연구 논문은 다음의 6편이다. 譚妮如(2011),「李基憲『燕行錄』中之淸代中國形象」, <漢學硏究集刊>12, 雲林科技大學漢學資料整理硏究所; 徐毅・千金梅(2012),「十八世紀中韓文人學誼的新見證 -『同文神交』」, <한자한문연구> 8,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劉婧(2013),「朝鮮典籍淸人序跋考論」, <대동한문학> 39, 대동한문학회; 徐毅・李姝雯(2014),「論十八世紀中朝文人交遊的原因」, <東疆學刊> 第31卷 第3期, 中國延邊大學; 宋玉波・彭衛民(2014),「朝鮮燕行使節中華認同觀的遞嬗」, <西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05期, 中國西南大學; 陳俐(2016),「論淸代中朝文士筆談的主要特徵」, <대동한문학> 46, 대동한문학회.

어난 북경 명사와 한문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은 지방 문인으로 나누고, 조선 사신들이 북경 명사들과의 교유를 청한 사실과 함께 지방 문인들이 조선 사신들과의 교유를 청한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연행록을 통해 중국 문헌에 전혀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은 문인의 생애와 생활 양상, 지식의 구축 등을 재구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연행록을 통해 중국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 지방 수재 제패련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조선 사신들과의 교유 경위 및 필담 내용을 고찰하고, 제패련과 조선 사신과의 교유를 다음의 두 가지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패련의 입장에서 그가 조선 사신을 만난 이유를 (1)조선 문인에 대한 欽慕, (2)개인 문집을 위한 請序 및 評點, (3)스승 홍양호에 대한 敬仰, (4)한반도 특산품 청구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고, 조선 사신의 입장에서 그들이 제패련을 만난 이유를 (1)중국 정치 현황과 중국 학술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 (2)조선 역대 인물에 대한 중국인의 평가, (3)필담을 통한 서로 한문 실력 검증, (4)청나라 문인과의 가문 교유 계승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Ⅱ. 楡關 秀才 齊佩蓮의 생애 및 조선 사신과의 교유

1. 중국 문헌에서 보이지 않는 齊佩蓮의 생애 재구성

18세기말 19세기초의 연행록을 살펴보면 매년은 아니지만 조선 사신들이 산해관을 통과하고 객사에서 묵을 때 항상 자신의 문집을 가지고 와서 진사를 자칭하며 만남을 청한 한 인물이 확인된다. 그는 조선 사신들과 적극적으로 교유한 덕에 그의 생애 정보는 해당 연행록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었다. 그는 유관 출신인 지방 수재 제패련이다. 홍양호의 『燕雲紀行』(1782)에서 최초로 기록되어 洪錫謨(1781~1851)의 『游燕藁』(1826)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45년을 걸친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패련이 실제로 조선 사신들과 직접 교유한 시기는 1780년부터 1805년까지 모두 26년이었다. 1805년 이후에 연행록에 기록된 제패련 관련 내용은 그에 대한 회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전면적으로 제패련의 생애를 재구성하기 위해 본고는 한국의 지식콘텐츠(KRpia)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행록총간(燕行錄叢刊)'을 주요 텍스트로 하되 제패련이 조선 문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수록한 『同文神交』(한국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홍희준의 문집 『傳舊』(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등 자료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중국 문헌에서 이미 사라진 제패련의 생애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제패련의 자는 製裳(혹은 君裳), 호는 黃崖山人(혹은 黃厓山人・黃崖散人)・紫村一號・紫邨居士다. 본관은 원래 江南 溧陽에 있었고, 명나라 때 조상들이 세습으로 指揮僉事都督同知를 맡았다가, 청나라에 이르러 가업을 잃자 撫寧縣으로 본관을 옮겼으나 벼슬에 나간 자가 적지 않았다. 그의 백부는 甲辰年(1724)에 무과 장원이 되어 兩湖(즉 湖北・湖南)의 提督으로 재직할 때 金川을 토벌하여 공을 세웠다. 그의 조부는 乾隆 乙丑年(1745)에 무과 진사가 되어 湖南鎭總兵을 제수받았다. 그의 숙부는 음생으로 관직을 얻었는데 山東 臨淸衛의 守府에 잠깐 거주한 적이 있다. 제패련은 삼형제에서 큰 아들로 태어났다.
>
> 어릴 적에 조부를 따라 부임지 강남에 가서 여러 명승지를 두루 노닐었고, 돌아오는 길에 아름답고 소탈한 黃崖山의 산꼭대기를 보고 거기서 공부했었으니 스스로 黃崖山人이라 했다. 乾隆 庚戌年(1790)에 鄕貢進士가 되었으나 65세가 된 모친의 고령으로 인하여 결국 벼슬살이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유관 서북쪽으로 3리에 떨어진 許妙岭 武王庄에 거주하고 있고, 43세가 된 嘉慶 6년(1801)에 여전히 후사가 없었다. 아우 述菴이 乾隆 60년(1795)에 별세했다.
>
> 산동 登州에 있는 張孝廉의 집에서 조선 문인 淸陰 金尙憲의 문집을 읽어보았고, 산동 臨淸州에서 이름난 기녀 趙桂香과 주고받은 수창시와 해외 수십 명의 문인이 이 시에 대해 지은 창화시를 모아 『遣情集』을 편찬한 바 있다. 문재가 몹시 뛰어나 붓을 잡으면 글이 절로 지어졌다. 조선 사신이 사명을 받들고 연행길에 오를 때마다 만남을 청하여 하룻밤 동안 필담을 했다. 저서로 『黃厓詩稿』가 있는데 조선 문인 洪良浩와 曺允大가 지은 서문이 있다. 홍양호가 그의 시문을 보고 '文은 경전을 인용하여 史實을 증명하고, 연원이 깊고 흐름이 웅장

하면서, 체재가 순아하고, 이치가 정밀하니 한없이 넓고 광대하여 그 나아감을 헤아릴 수 없다. 詩는 문사가 광채가 나고, 소리와 음운이 청경하며, 문재가 표일하고 언사가 절묘하다.(文則引經證史, 源遠流洪, 體裁馴雅, 理致精詣, 浩浩乎其進不可量已 ; 詩則藻彩映發, 聲韻淸警, 才逸而語妙)'라고 극찬하였다. 조청문 인수창시문집을 편찬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았다.[6]

제패련의 생애에 있어 두 가지 규명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제패련의 생몰년에 관한 문제다. 그가 1793년 12월 15일에 三節年貢兼謝恩行의 부사 이재학을 만났을 때 자신이 37세라고 했으므로 그는 1756년에 태어났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1801년 12월에 冬至兼陳奏行의 서장관 이기헌을 만났을 때는 자신이 43세라고 했다. 이렇게 보면 그의 생년은 1758년이 된다.[7] 또 다른 연행록을 보면 제패련은 1805년 2월에 告訃行의 서장관 姜浚欽(1768~1833)을 만났는데, 이는 제패련이 조선 사신을 만난 마지막 기록이다. 1815년에 冬至兼謝恩行의 정사 洪義浩(1758~1826)는 제패련을 그리워하며 '제패련 어르신이 이제 살아 계시지 않으니 三江의 소식을 더욱 알아보기가 힘들구나.(齊老佩蓮今不在, 三江消息更難攀.)'라는 시를 지었다.[8]

---

6) 인용문에서 제시한 제패련의 생애는 필자가 연행록과 여러 한국 현전 문헌에 기록된 한문·한글 자료를 망라하여 1차적으로 한문으로 정리하였고 다시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한문으로 정리한 제패련의 생애는 다음과 같다. "齊佩蓮, 字製裳(一作君裳), 號黃崖山人(一作黃厓山人·黃崖散人)·紫村一號·紫邨居士. 原籍江南溧陽, 先祖於前明世襲指揮僉事都督同知, 至淸朝定鼎遂失, 入籍撫寧縣, 然仕宦者尙不乏人. 其伯雍正甲辰(1724)武壯元, 提督兩湖, 征金川有功. 其祖乾隆乙丑(1745)武進士, 任湖南鎭總兵. 其叔以太學生蔭生得官, 曾居山東臨淸衛守府. 兄弟三人, 居長. 髫齡隨祖任在江南, 佳山勝水俱各遊遍, 歸途見黃崖頂, 峰巒秀逸, 讀書其中, 故號黃崖山人也. 乾隆庚戌(1790)鄕貢進士, 因家慈高年六十五, 尙未赴選, 寓居於楡關西北三里許妙岭武王庄, 仲弟述菴卒於乾隆60年(1795), 嘉慶6年(1801)43歲尙無子嗣. 曾於山東登州張孝廉家中見朝鮮淸陰金尙憲遺集, 亦曾與山東臨淸州名妓趙桂香酬唱賦詩, 所唱詩得海內數十家相和, 目爲『遣情集』, 即趙桂香亦有和詩, 頗有文識, 操筆成言. 每値東使之行, 常往訪請見, 終夜筆談. 著有詩文集『黃厓詩稿』, 東使洪良浩·曺允大皆有序. 洪良浩評其『文則引經證史, 源遠流洪, 體裁馴雅, 理致精詣, 浩浩乎其進不可量已 ; 詩則藻彩映發, 聲韻淸警, 才逸而語妙.』亦編有朝淸使臣唱酬集, 今不傳."

7) 李在學, 『燕行日記』上, 十二月十五日. "抵楡關, 止宿於廉姓人家. －중략－ 夜有齊生佩蓮者, 自道黃厓山人, 入居店北武黃庄, 而**庚戌成進士**, 年今**三十七**. " 李基憲, 『燕行日記』上. "有齊進士者, 持稿請見, 使坐炕上, 給紙筆. －중략－ 問, '尊慈尊年幾何?' 答, '家慈年七十六矣, 僕年**四十三**歲.'"

제패련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아 그의 몰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1805년부터 1815년까지의 11년 사이에 별세한 것은 확실하다. 다시 정리하면 제패련은 1756년, 혹은 1758년에 태어나, 1805년~1815년 사이에 별세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제패련은 鄕貢進士라고 자칭하였는데,[9] 청나라 때 지방에서 관청의 천거를 받아 貢生의 자격을 부여받은 후 國子監에 들어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거나 바로 하위관직에 나아간 사람을 가리켜 향공진사, 혹은 歲貢進士, 歲進士라고 한다. 제패련이 조선 사신과의 만남에서 자신을 향공진사라고 한 경우는 단 한 번이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을 그저 진사라고 소개했다. 특히 '경술년에 진사가 되었다.(庚戌成進士)'고 자칭한 것은 조선 사신들에게 큰 오해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庚戌年(1790)에 乾隆帝의 八旬을 축하하기 위해 1789년에 己酉鄕試恩科를, 1790년에 庚戌會試恩科를 개설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선 사신들은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庚戌會試恩科의 응시자격은 己酉鄕試恩科를 통과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다. 당시 己酉鄕試恩科 급제 명단을 수록한『各省選拔同年齒錄』(乾隆54年己酉科)[10]의 제1책「盛京・直隸・江蘇・安徽」와 제2책「浙江・福建・湖北・湖南・河南」을 검색한 결과, 제패련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제패련이 그저 생원의 자격을 가진 향공진사일 뿐 己酉鄕試와 庚戌會試를 통과해 전시에서 진사 자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2. 조선 사신과의 교유 경위와 필담 내용

1780년부터 1805년까지 26년 동안 42종의 연행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패련이 조선 사신을 직접 만난 횟수는 적어도 20차례, 교유했던 조선 사신의 인원수는 적어도 28명에 달한다. 그가 교유한 조선 사신과 시기, 그리고 교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8) 洪義浩,「夕抵楡關懷齊生【佩蓮】」,『澹寧燕行詩』.

9) 李基憲,『燕行日記』上. "上使問曰, '姓名甚麼?' 答曰, '吾姓齊名佩蓮, 字製裳, 號紫村一號・黃崖散人, 係**鄕貢進士**. 近年來屢蒙貴東眾君子不棄, 今又得唔台顔, 何幸如之?'"

10)『各省選拔同年齒錄』(乾隆54年己酉科),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소장본.

연대	사행목적	직책과 이름	문필활동	출처
1780.10 正祖4乾隆45	謝恩	正使李塘 副使李崇祜 書狀尹長烈	만남	李基憲,『燕行日記』
1782.10 正祖6乾隆47	三節年貢兼謝恩	副使洪良浩	필담	洪良浩,『燕雲紀行』
		副使洪良浩	칠율 1 수	『同文神交』
1783.10 正祖7乾隆48	三節年貢兼謝恩	書狀李東郁	만남	李基憲,『燕行日記』
1784.10 正祖8乾隆49	陳賀謝恩兼三節年貢	正使李徽之	만남	金載瓚,『海石遺稿』四
1789.10 正祖13乾隆54	陳賀謝恩兼三節年貢	副使趙宗鉉	만남	『同文神交』
1790.10 正祖14乾隆55	冬至兼謝恩	白景炫・朴齊家・金宗煥・李箕元・李光稷	필담 오율 1 수	白景炫,『燕行錄』卷之二
		正使金箕性	(X)	金箕性,『燕行日記』乾
		白景炫	필담	白景炫,『燕行錄』卷之四
1791.10 正祖15乾隆56	冬至兼謝恩	金正中	필담	金正中,『燕行錄』
1793.10 正祖17乾隆58	三節年貢兼謝恩	副使李在學	필담 오율 2 수	李在學,『燕行日記』; 李在學,『癸丑燕行詩』; 李基憲,『燕行日記』上
		李繼祜	필담	李繼祜,『연힝녹』
		副使李在學	필담	李在學,『燕行日記』
1794.10 正祖18乾隆59	三節年貢兼謝恩	正使洪良浩 洪羲俊	필담 칠절 1 수 서발문 1편	洪良浩,『燕雲續詠』; 洪良浩,『耳溪洪良浩全書』
		正使洪良浩	답서 5 통 칠율 1 수	『同文神交』
		洪羲俊	오절 1 수 편지 4 통	洪羲俊,『傳舊』
1795.10 正祖19乾隆60	三節年貢兼謝恩	正使閔鍾顯 副使李亨元 書狀趙德潤	만남	洪羲俊,『傳舊』,「與楡關齊秀才佩蓮書」
1799.10 正祖23嘉慶4	陳賀兼歲幣	正使金載瓚 金載璉	칠율 1 수	金載瓚,『海石遺稿』四
1801.08	陳賀兼謝恩	副使吳載紹	필담	吳載紹,『燕行日記』;

연대	사행목적	직책과 이름	문필활동	출처
純祖1嘉慶6		書狀鄭晩錫	서적 증정	李基憲,『燕行日記』上
1801.10 純祖1嘉慶6	冬至兼陳奏	正使曺允大 副使徐美修 書狀李基憲	필담 오율 1 수 서발문 1편	李基憲,『燕行詩軸』; 李基憲,『燕行日記』上
		正使曺允大 副使徐美修 書狀李基憲	필담 오율 1 수	李基憲,『燕行日記』下
1803.10 純祖3嘉慶8	三節年貢	李海應	필담	李海應,『薊山紀程』
		李海應	필담 칠절 1 수	李海應,『薊山紀程』
1805.02 純祖5嘉慶10	告訃	書狀姜浚欽	오절 1 수 칠절 1 수	姜浚欽,『燕行錄』
1815.10 純祖15嘉慶20	冬至兼謝恩	正使洪義浩	칠절 1 수	洪義浩,『澹寧燕行詩』
1826.10 純祖26道光6	冬至兼謝恩	正使洪羲俊 洪錫謨	칠절 1 수	洪錫謨,『游燕藁』,「宿楡關」

〈표 1〉 제패련이 교유한 조선 사신과 시기, 교유 내용

먼저 규명해야 할 것은, 제패련은 사절단 중의 한 사람과 교유한 경우도 있고, 몇 사람과 교유한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한 사람과 교유한 경우, 반드시 같은 사절단의 다른 사람과 교유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제패련이 1790년에 冬至兼謝恩行 사절단에 찾아가 白景炫(1792~1846)·朴齊家(1750~1815)·金宗煥·李箕元(1745~?)·李光稷 등 자제군관들을 만났지만 정사 金箕性(?~1811)은 건강상의 이유로 결국 만나지 못했다. 또한 <표 1>에서 보이듯이 제패련과 조선 사신들의 교유가 바로 해당 연도의 연행록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기록들은 이후 조선 사신들과 대화하면서 과거에 조선 사신을 만났던 기억을 언급한 내용을 통해 확인한 것들이다. 해당 연도에 바로 기록되지 않은 제패련과 조선 사신들의 만남은 모두 다섯 번이다.[11] 이 가운데 제패련과 조선 사신들의 첫 만남은 1801년 冬至兼

11) 1780년 10월 謝恩行의 正使 李塘, 副使 李崇祜, 書狀官 尹長烈; 1783년 10월 三節年貢兼謝恩行의 書狀官 李東郁; 1784년 10월 陳賀謝恩兼三節年貢行의 正使 李徽之; 1789년 10월 陳賀謝恩兼三節年貢行의 副使 趙宗鉉; 1795년 10월 三節年貢兼謝恩行의 正使 閔鍾顯, 副使 李亨元, 書狀官 趙德潤.

陳奏行의 서장관 이기헌과의 대화에서 확인된다.

> (제패련이 말하기를) 庚子年(1780년) 겨울에 제가 귀국의 여러 大人을 뵙고 바로 인정을 받아, 지금까지 이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大人이 주신 시와 글들을 모아, 이미 한 권의 책을 이루었습니다.[12)]

庚子年은 1780년으로, 그 해에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 사절단이 들어갔다. 곧, 5월에 출발한 陳賀兼謝恩行, 10월에 출발한 謝恩行, 그리고 11월에 출발한 三節年貢行이다. 조선시대에 한양 慕華館에서 출발하여 산해관 안에 있는 유관에 도착하기까지 약 50일이 걸렸다. 5월에 출발했다면 유관을 지나갈 때는 아직 여름이고, 11월에 출발했다면 이듬해가 되어야 유관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제패련이 만난 조선 사신들은 10월에 謝恩行으로 중국에 들어간 정사 李塘, 부사 李崇祜(1723~1789), 서장관 尹長烈(1743~?)임을 알 수 있다.

1805년 2월에 告訃行의 서장관으로 연행길에 오른 강준흠과의 만남은 현전 연행록에서 확인된 조선 사신과의 마지막 만남이다. 강준흠은 「유관참에서 진사 제패련을 만나며(楡關站遇齊進士佩蓮)」라는 시에서 '푸른 바다(조선)에서 이름을 오래 들었으나 유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구나(滄海知名久, 楡關識回初).'라고 하여 제패련이라는 이름이 조선에서도 유명하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나 1805년부터 1815년까지 10년 동안 제패련의 이름은 연행록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 홍의호가 1815년에 쓴 『澹寧燕行詩』에서 다시 등장하지만,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다.

제패련이 조선 사신들과의 구체적인 필담 내용은 주로 이재학의 『燕行日記』·李繼祜(1754~1833)의 한글 『연힝녹』·吳載紹(1739~1811)의 『燕行日記』·이기헌의 『燕行日記』·李海應(1775~1825)의 『薊山紀程』 등에 수록되어 있다. 필담 내용을 분석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5 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 있다.

---

12) 李基憲, 『燕行日記』上. "自庚子冬僕與貴東眾大人相唔, 即蒙許可, 迄今廿餘載。眾大人俱有詩章相贈, 業已成集矣"

	주 제	내 용
1	중국의 당시 정세	白蓮敎 사건, 당대 명사들, 西學 등
2	중국 학술	程朱學과 陸王學, 韓愈와 朱熹의 仁說 차이, 중국에서 전해진 淸陰 金尙憲의 문집, 金尙憲에 대한 王士禎의 논의 등
3	지리・역사 정보	『禹貢』에 기록된 碣石山, 蒙恬이 축조한 長城, 關公과 關公廟, 纏足 풍습, 山東省과 山西省의 지리 위치, 황허 수로 등
4	산수 명승지	강남, 錢塘江, 西湖, 산동 기녀 趙桂香, 楡關의 명승지, 昌黎縣 韓文公祠 등
5	제패련 생애	제패련의 생애 및 사환, 조상의 관직 이력 등

〈표 2〉 제패련과 조선 사신들의 대화 내용

내용을 보면 역시 중국의 정세에 관한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 사신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임무가 정보 수집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보 수집 활동에서도 특히 중국 정치 현황에 중점을 두었다.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까지 중국 본토에서 일어난 가장 큰 반란이 바로 白蓮敎 반란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패련과 교유했던 조선 사신들은 백련교 반란에 대해 많은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조선 사신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중국 학술의 현황이었다. 당대 문단에서 으뜸으로 생각되던 인물, 제패련의 문집에서 언급한 程朱學과 陸王學의 차이점 등의 문제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았다. 기타 蒙恬이 축조한 長城, 關公과 關公廟, 纏足 풍습 등에 대한 논의는 기존 여러 연행록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이므로 제패련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기보다 기존 정보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이었다.

Ⅲ. 齊佩蓮과 조선 사신의 교유와 그 목적

1. 조선 사신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청한 이유

연행록을 보면 적극적으로 조선 사신과의 만남을 청한 18세기 중국 지방 수재로 제패련 이외에 大陵河 秀才 王俊公·薊州 秀才 康田·沙流河 秀才 王化·寧遠衛 擧人 王渭 등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러나 26년 동안 적극적으로 조선 사신들과 교유한 유관 수재 제패련은 아주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780년부터 1805년까지의 연행록과 다른 문헌에서 보인 제패련 관련 기록을 분석하여 제패련이 조선 사신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청한 이유를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조선 문인에 대한 欽慕

제패련은 1801년에 冬至兼陳奏行 일행을 만나 조선 문인을 흠모하여 그들과 적극적으로 교유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 부사가 말하기를, “이역에서 해후하여 속마음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으니 그대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 할 만합니다.”라고 하자 (제패련이) 답하기를, “평소 귀국의 인물을 흠모하였기에, 사절단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마중하러 달려왔습니다.”라고 하였다.[13]

1801년 12월경 冬至兼陳奏行 일행이 유관에 도착하여 肅씨 인가에 투숙할 때 제패련이 만남을 청하고서 정사 曺允大(1748~1813)·부사 徐美修(1752~?)·서장관 이기헌과 하룻밤동안 필담을 했다. 조선 사신의 질문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하지 않음이 없으니 부사 서미수가 그를 가리켜 정이 많은 사람(有心人)이라고 칭찬하였다. 이에 제패련은 평소에 조선 문인의 명성을 많이 들었기에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 사절단이 지나갈 때마다 반드시 마중

---

13) 李基憲, 『燕行日記』上. “副使曰, ‘殊方邂逅, 傾倒困廩, 尊可謂有心人也.’ 答, ‘素慕貴東人物, 故聞旅旗賁臨, 即爲趍迎.’”

하러 온다고 밝혔다.

제패련은 조선의 명사뿐만 아니라 조선의 의복, 문장, 제도, 예절에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 또한 제패련이 조선 사신과의 교유를 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조윤대와의 대화 내용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상사가 묻기를,) "우리의 衣冠을 보니 해괴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여러 곳의 제도는 원래 획일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귀국의 의관은 사뭇 예스러운 풍습이 있는 데에 비해 중화의 복식은 화려함만을 다툽니다. 저는 본성이 질박하고 산수를 좋아하니 제 의관도 부미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묻기를, "우리의 의관을 보고 옛날의 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존경할 만합니다."라고 하자 "귀국의 문장과 제도는 모두 옛사람과 서로 다르지 않으니 제가 평소에 깊이 경모한 바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묻기를, "우리나라는 복식이 箕子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의를 숭상하며 程子와 朱子의 책이 아니면 읽지 않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禮義之邦)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이 우주에서 본래 한 나라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직 귀국이 여러 나라 중에 으뜸입니다."라고 답하였다.[14]

인용문에서 제패련은 조선의 복식이 예스러운 풍습이 있고, 문장과 제도가 옛사람과 서로 다르지 않아, 여러 나라 중에 으뜸이라고 극찬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제도가 모두 옛 사람과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하고, 또 조선의 복식이 箕子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고 한 조윤대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다는 점을 보면 제패련은 문장·제도·복식에 있어서 중국과 조선의 깊은 관련을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 이것은 제패련이 지방 수재로서 식견이 부족하였던 사실을 알려준다.

---

14) 李基憲, 『燕行日記』上. "(上使)'俺們衣冠看得可駭不駭?' 答, '各處制度原難畫一. 貴東衣冠頗有古風, 中華則華靡鬪勝. 僕性簡朴, 好山水, 故衣冠亦不肯入于浮靡.' 問, '俺們衣冠能認得古制? 可敬.' 答, '貴東文章制度, 俱於古人不相往來, 僕素所深敬.' 問, '我東服襲箕師之敎, 敦尙禮義, 非洛閩之書不讀, 中國亦認以禮義之邦否?' 答, '寰宇之中, 建國本非一邦, 屬貴東爲衆邦之冠.'"

2) 개인 문집을 위한 請序 및 評點

제패련은 조선 문인의 명성을 흠모하여 자신의 시문을 조선 사신들에 보여주며 서발문과 평점을 받기를 원했다. 이재학의 『燕行日記』를 보면 제패련이 1793년 12월 15일에 황애산인이라 자칭하며 자신의 문집을 가지고 사절단 일행을 만나러 왔다는 기록이 있다.[15] 여기서 제패련의 문집이 최초로 연행록에 등장한다. 그러나 제패련의 문집은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재학과 함께 중국에 들어간 이계호는 그의 『연힝녹』에서, 제패련의 문집에서 홍양호의 친필 평점을 보았다고 기록하였다.

> 쥬인의 드니 진ᄉᆞ 제ᄑᆡ련이라 제 문집을 가지고 왓거ᄂᆞᆯ 제목을 보니 황ᄋᆡ산인이라 슨 글시사니 현 즁신이셰 홍판셔의 글시오. 글에 폄ᄒᆞᆫ 것도 다 그 즁신의 슈젹이니 타국에 고인을 본 듯ᄒᆞ여 ᄆᆞᅀᆞᆷ의 심이 반기나 올젹 그 즁신의 편지를 밧다왓더니 유관이 즁노에 잇ᄂᆞᆫ 쥴 모로고 황셩 가물 짐에 너엇기 못 젼ᄒᆞ니 저도 극히 셥ᄉᆞᄒᆞ여 ᄒᆞ더라.[16]

인용문에 보이는 것처럼 제패련은 12월 15일 밤 자신의 문집을 가지고 와서 조선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문집 표지에 홍양호가 친필로 쓴 '黃厓山人'의 네 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문집 속에는 홍양호가 친필로 평점한 것도 있었다. 홍양호가 1782년 1차 연행 때 지은 시를 모아 만든 『燕雲紀行』에 「유관에서 수재 제패련에 증하며(楡關贈齊秀才佩蓮)」라는 시가 있다. 이 시에서 홍양호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계호의 『연행록』을 통해 당시 홍양호가 제패련의 문집에 평점을 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계호가 북경에 갔다가 귀국한 1794년에 홍양호가 다시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가게 되었다. 그는 유관에 도착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제패련을 만나, 그의 문집을 위해 「유관 제패련의 『黃厓詩稿』에 발문을 제하며(題楡關齊佩蓮『黃厓詩稿』後)」라는 서발문을 지어 주었다. 『黃厓詩稿』는 전하

15) 李在學, 『燕行日記』上, 十二月十五日. "夜有齊生佩蓮者, 自道黃厓山人, 入居店北武黃庄, 而庚戌成進士, 年今三十七. 攜其所著文集來示之."

16) 李繼祖, 『연힝녹』.

지 않으나 『耳溪洪良浩全書』에 수록된 이 서발문을 통해 그 내용에는 시뿐만 아니라 산문도 함께 수록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패련은 1801년에 다시 『黃厓詩稿』를 들고 冬至兼陳奏行의 사신과의 만남을 청했다. 이기헌의 『燕行日記』에는 그날 만남의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다. 제패련이 조선 사신을 만난 후 정사 조윤대는 "연경에서 돌아온 동국의 사신을 통해 유관에 황애산인이 산다는 말을 익히도 들었는데 이제 다행이도 淸範을 뵙게 되었습니다.(曾因東使之回, 飽聞楡關有黃崖散人, 今幸得接淸範)"라고 하여, 그의 이름이 조선에까지 알려져 있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이어서 제패련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은 무슨 내용이냐고 묻고는, 읽고서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밤사이에 책을 다 읽고 평점을 한 다음 내일 돌려주겠다고 하자 제패련은 "대인께서 지적과 산삭을 해주신다면 내년 봄에 귀환하실 때 다시 만나 돌려주셔도 됩니다(如蒙大人郢削, 明春返旆再交可也.)"라고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조윤대가 제패련의 문집에 서발문을 써준 사실은 1803년에 벗인 서장관 徐長輔(1767~1830)를 따라 중국에 다녀온 이해응이 지은 『薊山紀程』에서 확인된다. 그날 제패련은 손에 문집을 들고 방문하여 이를 꺼내어 보여주며 홍양호와 조윤대가 써준 서발문을 모두 한 권의 문집에 수록했다고 하였다.[17]

제패련이 조윤대와 서미수, 이기헌과의 필담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단락이 있다.

> (제패련이 말하기를) "庚子年(1780년) 겨울에 제가 귀국의 여러 大人을 뵙고 바로 인정을 받아, 지금까지 이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大人이 주신 시와 글들을 모아, 이미 한 권의 책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통한 자는 金載璉으로 서로 수창하여 지은 시구가 많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으니 안타깝습니다." 묻기를, "왜 그 唱酬集을 가져 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숙부가 산동의 임소에 가져갔습니다. 아직 몇 구절을 기억하고 있습니

17) 李海應, 『薊山紀程』. "有恩選進士齊佩蓮者, 頗以文藝稱. 是夕來訪於店舍, 畧與筆談. -중략- 齊因袖出平日所著詩文一卷, 而洪耳溪良浩・曺尙書允大使燕時, 為之批評, 跋篇之文, 酬韻之詩, 俱謄載一卷.」

다.”라고 하였다.[18]

제패련이 조선 사신과 주고받은 수창시를 모아 수창집을 엮은 사실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재학과 홍양호의 시 두 수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다.[19] 제패련의 숙부가 이 수창집을 산동의 임소에 가져간 관계로 조윤대를 비롯한 冬至兼陳奏行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이 수창집이 발견된다면 조선 문인의 저술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3) 스승 홍양호에 대한 敬仰

조선 문인의 한문 실력을 경모하여 자신의 문집을 보여주며 서발문을 청한 것은 제패련이 조선 사신들과 교유한 주요 목적이지만, 조선 사신들과 친분을 맺은 벗으로서 예전에 교유했던 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적이었다. 때문에 제패련과 조선 사신들의 교유는 만날 때마다 새로운 교유를 전개한 것이라기보다 기존의 교유 위에서 이루어진 교유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조선 사신을 만날 때마다 예전에 교유했던 조선 사신들의 안부를 묻기 마련이었다. 이 가운데 제패련은 특히 뛰어난 한문 실력을 갖춘 홍양호에 경도되었다. 조선 사신을 만날 때마다 홍양호의 제자를 자칭하면서 홍양호의 안부를 물을 정도였다. 물론 조선 문단의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홍양호의 안부를 물은 것이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겠지만, 중국 문인이 조선 문인을 스승이라고 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제패련과 홍양호의 교유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

홍양호의 자는 漢師, 호는 耳溪, 본관은 풍산이다. 漢城府 府尹과 兵曹判書·刑曹判書·吏曹判書·左贊成 등 淸要職을 역임하였고, 조선의 학술·

---

18) 李基憲, 『燕行日記』上. “曰, ‘自庚子冬僕與貴東眾大人相唔, 即蒙許可, 迄今廿餘載. 眾大人俱有詩章相贈, 業已成集矣. 最相契者金公載璉, 唱酬之句甚多, 可惜下世.’ 問, ‘唱酬集何不攜來與我們看一看?’ 答, ‘家叔攜至山東任所矣, 尙記得數章.’”

19) 李基憲, 『燕行日記』上. “‘匹馬楡關路, 春晴物候新. 三更孤獨夜, 千里異鄕人. 地勢雖分域, 神交即比隣. 忿忿別離後, 尺素可相親.’ 此在學李公句也. ‘愛君丰秀比南金, 逆旅逢迎已許心. 萬里行人初返節, 三春佳景更開襟. 樽前雅話停歸轄, 林外和鳴有好禽. 別後愁思滄海隔, 秖應努力報知音.’此洪公耳溪老人句也.”

역사·지리·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남긴 저술은 『이계집』을 비롯한 몇 종이 있다. 1794년에 謝恩兼三節年貢行의 정사가 되어 2차 연행 때 청나라의 석학인 紀昀(1724~1805)과 우의를 맺어 '시는 盛唐에 가깝고 문은 根柢가 심후하다.(詩逼唐晉, 文則根柢深厚.)'라는 평가를 받은 후 청나라에서 큰 명성을 얻었다. 그가 1782년 10월에 三節年貢兼謝恩行의 부사가 되어 1차 연행으로 중국에 갔을 때 제패련과 필담하고 그의 시문집을 평점하면서 '이별한 후에 푸른 바다에 막혀 서로 그리운 마음 간절하여, 다만 지음에 보답하려고 애쓸 따름이네.(別後相思滄海隔, 秖應努力報知音.)'라는 시를 지어 격려해 주었다. '지음에 보답하려고 애쓸 따름이네.(努力報知音.)'라는 말은, 나중에 제패련이 홍양호와 그의 아들 홍희준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20] 이 시에 담긴 자신에 대한 홍양호의 격려와 기대를 잘 알기 때문이다.

첫 만남에서 홍양호에 경도되어 스스로 홍양호의 문하생이라 자칭한 사실은 이듬해 중국에 들어간 金正中과의 대화에서 확인된다.

> 제수재가 방문하러 왔다. －중략－ 나에게 묻기를, "이계 홍 선생님은 평안하십니까?"라고 하자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홍공과 사귀게 되었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천리 길에 지나갈 때 우연히 만나 감사히도 척지의 공간을 빌려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홍공의 문하생으로 자처하는 뜻이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홍공은 지금 우리나라의 방백으로 식사를 잘 하시고 시를 꾸준히 짓고 계십니다."라고 하였다. 얼굴을 마주하여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깊은 밤이 되어야 그쳤다.[21]

---

20) 『同文神交』, 한국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泥厓洪大人, 高陞. 癸卯孟春, 深蒙不棄, 寒微有**努力報知音**之贈, 至今已閱七八年矣, 猶耿耿于懷. －중략－ 愧晩犹魚魚鹿鹿, 無一善狀, 不能遠報知音, 足深歉仄. 幸功名稍就, 未得大用, 待異日大成, 再爲佈聞."(제13통); 齊佩蓮, 『傳舊』(洪羲俊). "僕平州樗櫟, 塞下庸愚, 頻年來魚魚鹿鹿, 毫無善狀久已, 見刖於人. 不意壬寅冬底倏承海外鉅鄉, 別施靑目, 有**努力報知音**之贈."

21) 金正中, 『燕行錄』. "有齊秀才來訪, －중략－ 向余問, '洪耳溪先生平安乎?' 余曰, '何以得交於洪公?' 答曰, '偶際千里之過, 幸得尺地之借.' 且其意自處以門生. 余曰, '洪公今爲吾州方伯, 能健飯作詩不衰.' 對語良久, 夜深乃罷."

제패련이 당시 冬至兼謝恩行의 정사 金履素(1735~1798)의 자제군관으로 연행길에 오른 김정중에게 홍양호의 근황을 물었는데, 김정중은 그의 말에서 홍양호의 문하생으로 자처한 마음을 엿보았다. 제패련은 1793년에 三節年貢兼謝恩行의 부사 이재학과의 대화에서 '(홍양호의) 명성은 기성에서 으뜸이고, 그의 뛰어난 문장과 웅장한 저술은 동국에 가득하다.(名冠箕城, 宏章鉅軸, 遍滿東國)'는 말을 듣고 그에 대한 경모한 마음을 더욱 굳혔으며, 그의 가르침을 수시로 경청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22]

홍양호를 만난 지 12년 뒤인 1794년에 제패련은 다시 홍양호를 만나게 된다. 그가 자신의 시문집 『黃厓詩稿』를 보여주자 홍양호는 '옛날에 지어준 '지음에 보답하려고 애쓸 따름이네.'라는 말이 오늘 과연 입증되었다.(曩歲所贈努力報知音之句, 於今果驗矣)'라고 하여 12년 후 제패련의 시문이 훨씬 훌륭해졌음을 극찬했다.[23] 홍양호가 귀국한 3년 후, 제패련이 홍양호에게 '유아하고 풍유함이 내 스승이오, 이별한 지 삼 년이 지나고 또 겨울이 되었네.(儒雅風流是我師, 三春濶別又冬期)'라는 칠언율시를 지어 주었는데, 이 시에서 홍양호를 자기의 스승이라고 밝히면서 스승 홍양호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털어놓았다. 이재학의 『燕行日記』와 이해응의 『薊山紀程』에서도 홍양호를 그리워하는 제패련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반도 특산품 청구

연행록을 보면 중국인이 조선 사신에게 조선의 특산품을 요구한 장면이 종종 보인다. 조선의 특산품을 얻기 위해 조선 사신과 교유한 중국인도 있고,[24] 교유하면서 특산품을 요구한 중국인도 있다. 조선 사신들도 중국 문인

---

22) 『同文神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客冬得晤芝圃李公, 倍悉閣下名冠箕城, 宏章鉅軸, 遍滿東國. 恨天各一方, 不能時聆訓誨, 亦惟筆墨之間聊深芹敬而已."(제14통)

23) 洪良浩, 「題楡關齊佩蓮『黃厓詩稿』後」, 『耳溪洪良浩全書』. "文則引經證史, 源遠流洪, 體裁馴雅, 理致精詣, 浩浩乎其進不可量已; 詩則藻彩映發, 聲韻淸警, 才逸而語妙. 十年之間, 不覺歛袵而擊節, 古所稱三日刮目者, 非過語也. 更願博觀群書, 深求古人用意處, 文以八子為準, 詩以三唐為歸, 則何難造名家閫域耶? 曩歲所贈努力報知音之句, 於今果驗矣. 老夫與有幸焉耳."

24) 徐毅・李姝雯(2014), 「論十八世紀中朝文人交遊的原因」, <東疆學刊> 第31卷 第3期, p.66,

이 조선의 부채나 한지, 淸心丸 등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출발하기 전에 이것들을 많이 마련해 놓았다. 제패련은 조선 문인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문집을 보여주기 위해 교유를 청했지만, 교유하면서 한반도의 특산품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2011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견된 척독집 『同文神交』에 제패련이 홍양호에게 보낸 편지 다섯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두 편에 한지와 명주(細布)를 대신 사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한 편에 樹蔭堂에 걸 聯句 하나를 써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대인께서 준다고 하신 평생의 저술을 보내주시고 귀국의 유명한 종이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25)
>
> 그대 나라의 명주(細布) 한 두 필을 대신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26)
>
> 楷書로 樹蔭堂 위에 걸 聯句를 대신 써주신 것을 삼가 빕니다.27)

편지로 특산품을 요구한 것 외에도 조선 사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특산품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1801년에 冬至兼陳奏行 사절단 일행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제패련이 蘇合丸을 요구하자 정사 조윤대는 소합환을 청신환・海墨・부채(便面)와 함께 선물해 주었다.28)

제패련이 특산품을 요구하는 태도는 몇몇 조선 사신들에게 미움을 사기도 했다. 1793년 제패련과 교유했던 수행원 이계호는 그저 '죵야ᄒᆞ여 난만이 놀다가 약간 필묵과 환을 쥬어 보내니 무한 칭ᄉᆞᄒᆞ더라.'29)라고 하여 선물을

中國延邊大學. "朴趾源『熱河日記』載, 朴趾源向滿族文人富圖三格提出借書要求時, 富圖三格有云, '但願你老此刻暫回, 攜得真真的丸子(淸心元), 高麗扇子, 揀得精好的作面幣, 方見你老真誠結識, 借這書目未晚也.'"

25) 『同文神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大人所許平生著作遠惠, 貴東名紙希為郵寄, 是屬望切."(제13통)

26) 『同文神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祈將貴東細布代買一二疋爲感."(제14통)

27) 『同文神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伏祈順人代書樹蔭堂額一聯為感【楷書】."(제16통)

28) 李基憲, 『燕行日記』. "問曰, '貴庄村名云何?' 答, '敝庄爲武王庄, 離此西北三里. 貴東蘇合丸, 乞送幾丸爲感.' 上使曰, '謹當如敎. 又將淸新二丸・海墨二丁・便面二把, 聊表微情, 專望領收.' 答, '未得申敬, 返蒙先施, 謝謝.'"

29) 李繼祖, 『연힝녹』.

받은 제패련의 기쁜 모습을 묘사하였고, 부사 이재학은 “그의 언사와 용모를 살펴보면 비록 문자를 이해하지만 사뭇 요구하는 뜻이 있어 좋은 선비라 할 수 없다.(査其言貌, 雖解文字, 而頗有索求之意, 未可謂佳士也.)”[30]라고 비판했다. 선물은 조청 문인의 교유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서로 마음이 통하는 벗을 만나게 되면 자발적으로 개인 문집이나 특산품을 선물해주었다. 그러나 조선 사신이 적극적으로 사귀기를 청한 중국 북경의 명사가 아닌 이상 제패련과 같은 무명의 지방 수재가 조선 사신에게 선물을 요구한 행위는 그들의 미움을 살 수 밖에 없었다.

2. 齊佩蓮과 지속적으로 교유한 이유

제패련은 앞서 말한 네 가지의 이유로 조선 사신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청하였다. 반대로 조선 사신들은 역시 네 가지의 이유로 중국 북경 명사가 아닌 지방 수재인 제패련과 지속적으로 교유를 해 왔다. 그러나 중국 지방 수재를 흠모하거나 그에게 자신의 문집을 보여주며 서발문을 써달라는 마음은 없었고, 그들을 자기의 스승을 삼지 않았으며, 지방 수재를 통해 중국의 지방 특산품을 얻으려 한 생각도 없었다. 조선 사신들은 제패련과 성반된 목적으로 제패련과 교유한 것이었다. 즉 제패련을 청나라에 접근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그와 나눈 대화에서 중국의 정세나 현황을 알아보고 중국인이 조선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것이 연행록의 제패련 관련 기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제패련을 한문 실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지방 수재를 간주하여 한문 실력을 서로 비교한 조선 사신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청나라 문인과의 교유를 三代神交로 확장시키기 위해 그와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직접 그를 찾아가 교유한 예도 있었다. 이하, 조선 사신들이 제패련과 교유한 이유를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국 정치 현황과 중국 학술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

조선시대 대외관계는 국가 存亡에 관련된 중대사였기에 조선왕조는 事

30) 李在學, 『燕行日記』上, 十二月十五日.

大·交隣을 바탕으로 중국 청나라에 대해 적극적인 사대 정책을 추진하여 전형적인 조공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중국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식적·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對中政策에 활용하였다. 때문에 사명을 받들고 연행길에 오른 사신들이 중국 현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陳奏·謝恩·告訃 등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일에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었다.

제패련과의 교유 역시 이런 정보 수집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15년 10월에 冬至兼謝恩行의 정사로 중국에 들어간 홍의호는 「저녁에 유관에 도착하여 제패련을 그리우며(夕抵楡關懷齊生【佩蓮】)」 시에서 제패련을 통해 중국의 소식을 알아내고자 한 조선 사신들의 진정한 목적을 솔직하게 설파하였다.

昌黎山色忽開顔,	창려현 산색이 활짝 펴고,
白草黃楡古漢關.	흰 풀, 노란 느릅나무는 옛날 중국 관문이었네.
齊老佩蓮今不在,	제패련 어르신이 이제 살아 계시지 않으니,
三江消息更難攀.	三江의 소식을 더욱 알아보기가 힘들구나.[31]

홍의호는 제패련이 이미 죽어 三江, 즉 압록강의 맞은편에 있는 청나라 땅의 소식을 더 이상 알기가 어렵다고 탄식했다. 조선 사신들이 1780년부터 제패련과 교유하면서 기록한 정보 수집 관련 내용은 주로 이재학의 『燕行日記』·오재소의 『燕行日記』·이기헌의 『燕行日記』·이해응의 『薊山紀程』 등에 담겨 있다.

앞서 말했듯이 조선 사신들의 정보 수집 활동은 특히 중국 정치 현황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 조선 사신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사건은 18세기말에 일어난 白蓮敎 사건이었다. 9년(1796~1804)동안 중국의 湖北·四川·陝西·河南·甘肅 등 다섯 개의 성에서 벌어진 백련교 사건은 청나라 조정의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였다.[32] 1801년 8월과 10월에 각각 연행길에 오른 오

31) 洪義浩, 「夕抵楡關懷齊生【佩蓮】」, 『澹寧燕行詩』
32) 中國社會科學院歷史硏究所淸史室(1981), 『淸中期五省白蓮敎起義資料』 제1책, 江蘇:江

재소와 이기헌은 백련교 사건의 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해 제패련에게 물어 본 바 있다.

> 밤에 羽常이 서장관과 함께 楡縣의 진사 제패련을 불러와 필담을 나누었다. -중략- 또 敎匪라고 한 자들이 백련교의 명의로 사람을 모아 향을 피우다가 병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敎匪라고 칭했다. 匪라고 한 말은 匪類와 같다. 乾隆 말년에 湖北, 湖南에서 일어나 四川, 陝西로 옮겨 終南山을 점거했다. 장군 慶成・勒保는 해마다 패배를 당했고, 山東 總兵 朱射斗는 사뭇 잘 토벌했다. 朱射斗가 죽은 다음에 大帥 額勒登保가 연이어 승전을 거두었다. 교비의 두목인 劉之協의 號는 海大王이고, 또 王四獅子・七二寡婦・李狗兒 등 무리가 있었는데 거의 다 잡아 죽였고, 남은 무리들이 험준한 곳에 출몰하는데, 이제 곧 토벌할 것이라고 했다.33)

또,

> 물기를, “그대가 말한 敎匪는 원래 어디 출신 사람입니까?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몇 개의 군을 함락시켰습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敎匪들은 劉之協부터 비롯되어 湖北에서 湖南으로 확장하여 四川 達州에 도달했습니다. 冉添士 등이 반역을 하자 陝西로 확장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묻기를, “이제는 안정되었습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이제는 안정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묻기를, “병사를 일으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嘉慶 1년입니다.”라고 하였다. 묻기를, “草賊 무리에 불과하였는데 점점 모여서 성대해진 것입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원래 초적이었는데 그들이 험한 산골짜기에 근거해서 주현에 달려가 불의에 습격하여 마을을 약탈하자

蘇人民出版社, p.1.

33) 吳載紹, 『燕行日記』. “夜, 羽常與書狀邀縣人進士齊佩蓮歸傳筆談. -중략- 又聞敎匪者, 以白蓮敎聚徒燒香, 因以起兵, 故呼為敎匪. 匪之為言, 猶匪類也. 乾隆末始起兩湖, 轉入川陝, 據終南山, 將軍慶成・勒保等, 連歲敗績; 山東總兵朱射斗頗能翦勦. 朱既死, 大帥額勒登保連戰大捷. 匪魁劉之協號海大王, 又有王四獅子・七二寡婦・李狗兒之徒, 幾盡擒滅, 餘黨出沒險阻. 今方進討云矣.”

부득이하게 도적들에게 연루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묻기를, “전후로 병력을 얼마나 동원했습니까? 마지막에 초적들을 격파한 장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전후로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한 두목인 劉之協・王三槐・李汗超・冉添享・冉添士는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四川과 湖北, 湖南의 교비는 모두 네 갈래가 있는데 藍・白・黃・線 네 개의 字號로 나누어졌습니다. 藍字號 元帥의 이름은 王四獅子라고 하는데 그의 偽總兵 秦肖葛이 아직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묻기를, “그대가 말한 元帥는 바로 교비들의 元帥입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묻기를, “초적을 파멸시킨 元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川陝 大經略은 額勒登이고 保西湖 經略은 明亮인데 모두 만주 사람입니다.”라고 하였다.34)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오재소와 이기헌은 제패련과 대화하면서 백련교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문했다. 敎匪는 원래 어디 출신 사람인지, 병력은 얼마나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몇 개의 군을 함락시켰는지, 전후로 병력을 얼마나 동원했는지, 초적들을 격파한 장군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백련교 사건의 정보를 얻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상 함부로 제기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이었다. 책문에서 연경까지 조선 사신들을 수행한 중국 관리들은 물론 북경 명사들에게 물어보았어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질문들이었다. 따라서 이상의 문답은 제패련과 조선 사신들의 상호 신뢰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제패련은 진정한 마음으로 조선 사신들과 사귀고 조선 사신들이 역시 제패련을 믿

34) 李基憲, 『燕行日記』上. “問, ‘尊所謂敎匪, 原係何方人? 兵眾幾何? 始起何處? 陷郡幾何?’ 答, ‘敎匪起於劉之協, 在湖北, 延于湖南, 後四川達州. 冉添士等作逆, 延于陝西.’ 問, ‘今則無虞否?』答, ‘今無虞矣.’ 問, ‘起兵為幾何?’ 答, ‘嘉慶元年.’ 問, ‘不過是草賊者流, 聚眾漸盛否?’ 答, ‘本係草賊, 因伊據山谷之險, 出人不意, 赴州縣搶邨庄, 民人不得已而為其所累者多.’ 問, ‘前後用兵幾何? 最後破賊將軍姓名誰某?’ 答, ‘前後用兵最多頭目劉之協・王三槐・李汗超・冉添享・冉添士俱已就擒. 川湖敎匪有四股, 分藍白黃線四字號, 藍字號元帥, 名王四獅子, 其偽總兵秦肖葛尙未就獲.’ 問, ‘所謂元帥, 即敎匪元帥麼?’ 答, ‘是.’ 問, ‘破賊元帥姓名云何?’ 答, ‘川陝大經略是額勒登, 保西湖經略是明亮, 俱係滿人.’”

을 만한 정부수집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중국 정치 현황 이외에 중국 학술 현황도 조선 사신들의 관심사였다. 조윤대, 서미수, 이기헌 등이 제패련과 나눈 대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 程朱學과 陸王學의 차이점, 西學 등 중국 학술 현황에 관한 담론이었다. 이러한 담론은 기존의 연행록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므로 연행 사신들은 기존의 연행록들을 통해 이상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유롭게 청나라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이를 직접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당대 학술 현황에 대한 반복적 질문과 대답을 수록한 현전 연행록을 통해 명청시대 수백 년간의 당대 학술 현황에 대한 사적 고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 묻기를, “그대 나라에 도학문장의 명필은 누구를 으뜸으로 합니까? 그의 이름을 듣고자 합니다.”라고 하자 답하기를, “조정에 있는 유명한 인물로 尙書 彭元瑞, 壯元 戴衢亨을 꼽습니다.”라고 하였다. 묻기를, “도학에 있어 程朱를 숭상합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도학을 강론할 때 주자의 설을 근거로 합니다.”라고 하였다.35)

인용문에서 말한 彭元瑞(1731~1801), 戴衢亨(1755~1811)은 당시 청나라 조정에서 높은 인망을 받고 있어, 18세기말 19세기초 조선 사신들로부터 적극적인 만남 요청을 자주 받았던 인물이다. 조선 사신들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이미 중국 당대 명사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청나라에 들어가 지방 수재를 통해 이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제패련은 조선의 명사를 흠모하고 조선의 의복, 문장, 제도, 예절에 깊은 호감을 가지고서 조선 사신들과 교유하였다. 조선 사신들이 중국의 학술 현황에 대해 물었을 때에도 제패련은 이러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

35) 李基憲, 『燕行日記』上. “問, ‘大國道學文章名筆, 推某為首, 願聞姓名.’ 答, ‘在朝名公, 屬彭尙書元瑞・戴壯元衢亨.’ 問, ‘道學尊尙程朱否？’ 答, ‘講道學以朱紫陽為歸.’”

묻기를, “근래에 서양인 利瑪竇(마테오 리치)의 학문이 중국에 사뭇 전파되었다고 하던데 이것도 이단으로 보아 배척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서양인에게는 서양의 종교가 있지만 우리 유학자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고 배우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의 학문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묻기를, “배우는 자가 혹시 있습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배우는 자가 있다고 듣지 못했습니다. 서양인은 불과 역서를 만들 줄 알 뿐이어 중국에서 이러한 사람을 등용한 것이지 그대 나라가 仁을 따르고 義禮를 언설하며 가례를 지키는 것만 하겠습니까?”[36]

이처럼 제패련을 정보 수집의 중요한 경로로 생각하는 조선 사신들이 끊임없이 제패련과 교유하고 제패련도 역시 그들과의 대화에서 자기가 동경하는 조선의 풍습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가졌다.

2) 조선 역대 인물에 대한 중국인의 평가

제패련과의 대화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제패련이 산동 登州에 있는 張孝廉의 집에서 조선중기에 척화파의 핵심인물인 청음 김상헌의 문집 한 권을 본 적이 있다고 하자 조선 사신들이 큰 관심을 보인 내용이다. 장효렴은 누구인지 자세한 정보가 없어 알 수가 없지만 김상헌의 책을 간행한 명나라 사람 張延登(1566~1641)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장연등의 자는 濟美, 山東 鄒平 사람으로 萬曆 壬辰年(1592)에 진사가 되었다.[37] 명말청초 때 청나라가 북쪽 貢路를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1626년에 聖節兼謝恩陳奏行의 정사를 맡은 김상헌은 해로를 통해 명나라에 들어갔다. 그가 산동 등주에 상륙하였을 때 張延登이 자신 집에서 그를 대접한 적이 있었는

36) 李基憲, 『燕行日記』上. “問, ‘近聞西洋人利瑪竇之學, 頗流布中國云. 此亦不以異端斥之否?’ 答, ‘西洋人有西洋之敎, 吾等儒者亦不願聞, 亦不願學也. 卻未見其學問.’ 問, ‘間或有學習者否?’ 答, ‘未聞學者. 西洋不過能造憲書, 故中華用此等人. 何如貴東講仁, 說義禮, 遵家禮最好也.’”

37) 『山東通志』, 文淵閣四庫全書本. “張延登, 字濟美, 鄒平人. 萬歷壬辰進士, 令內黃有惠政, 擢兵科給事中. 上疏平朋黨, 再補吏科, 歷太僕寺卿, 以都御史巡撫浙江. 閩賊周三老自東甌入, 石浦連艘數千, 延登督諸軍討之, 累戰皆捷, 遂覆其巢. 累官工部尙書, 卒賜祭葬. ”

데, 후일 김상헌의 문집까지 간행하였다.[38] 王士禎(1634~1711)의 『池北偶談』에 의하면 그 책은 바로 김상헌의 『朝天錄』이다.[39]

김상헌은 1636년 병자호란 때 척화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仁祖가 청나라에 항복하자 귀향했다. 1639년에 상소를 올려 군대를 동원해 청나라를 도와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로 심양에 압송되어 감옥에서 6년의 세월을 보냈다. 多爾袞(1612~1650)이 조선에 회유정책을 시행하자 1645년에 석방되어 조선에 귀국했다. 그러나 제패련이 김상헌을 문집에 수록된 심양에 있을 때 쓴 불굴의 시구가 아주 좋다고(在瀋陽不屈記事詩甚好) 높은 평가를 했다. 김상헌이 『朝天錄』을 낼 때 아직은 중국에 압송되지 않았고 심양에서 보낸 생활에 관한 기록이 나중에 『雪窖集』 전집·후집으로 정리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아 『朝天錄』 이외에 김상헌의 다른 저술인 『雪窖集』도 중국에 유입되어 널리 읽어졌음을 알 수 있다.

> 답하기를, “청음 선생의 저작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풍류가 온결하고 耿耿한 기운도 있다. 그의 증손 김공(夢窩金昌集·農岩金昌協·三淵金昌翁·老稼齋金昌業 중 한 명으로 추정됨)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그의 문집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였다. 묻기를, “耿耿한 기운이란 과연 무슨 말입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耿耿이란 忠義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기운입니다.”라고 하였다. 묻기를, “忠義 두 글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제가 산동 등주에 있는 장효렴의 집에서 김상헌의 유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양에 있을 때 쓴 불굴의 시구가 아주 좋았으나 안타깝게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묻기를, “그의 전집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다만 1책만을 보았는데 매우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며, 전집인지 아닌지는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三韓 叔度(김상헌)의 문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묻기를, “청음의 전집은 모두 20여 책인데 거기에 있는 책이 아마도 그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라고 하자 답하기를 “그런 것 같습니

38) 王士禎, 『漁洋詩話』 卷上. “天啟中, 朝鮮使臣金尙憲, 字叔度, 由登州入貢, 鄒平張忠定公華東【延登】館之於家, 刻其詩一卷, 頗多佳句.”

39) 王士禎, 『池北偶談』, 朝鮮詩. “鄒平張尙書華東公【延登】, 刻朝鮮使臣金尙憲叔度『朝天錄』一卷, 詩多佳句, 略載於此.”

다.”라고 하였다.40)

척화를 주장하다 청나라에 압송되었던 김상헌이 심양에서의 감옥 생활을 기록한 『雪窖集』이 중국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1801년 10월의 冬至兼陳奏行 사신들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다. 청나라와 싸울 것을 호소했던 척화파의 핵심인물이 쓴 책인 데다가 청나라를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담긴 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어서 제패련에게 김상헌이 명나라를 위해 절의를 지켰는데 중국에서도 그를 忠義한 사람이라고 여기냐고 묻자, 제패련은 중국에서도 그를 중히 여긴다고 했다. 조선 사신들은 청나라에 갈 때 명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키다 죽임을 당한 인물의 유적을 찾아가 그들의 절개를 회상하는 시를 읊거나 현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청나라에 힘써 저항했던 김상헌의 저술은 중국에서 유통되어 지식인들 사이에서 읽히고 있었다. 이에 대해 조선 사신들은 그에 대한 청나라 조정의 평가를 더욱 자세히 알고자 중국에서 중히 여긴 사람이 오직 김상헌뿐이냐고 물었다. 제패련은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고 했다.41) 그의 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에 유입되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김상헌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가 바뀌어 그의 耿耿한 기운을 중히 여기게 된 것은 조선 사신들이 중국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3) 필담을 통한 서로 한문 실력 검증

한문 실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조선 사신들은 적극적으로 북경 명사에 찾아간 한편으로 중국 지방 수재들은 조선 사신들과의 교유를 적극적으로 청한 상황이 생겼다. 하지만 제패련과 조선 사신들의 대회에서는 재미있는 현

---

40) 李基憲, 『燕行日記』上. “曰, ‘淸陰先生著作僕見過, 風流蘊結, 兼有耿耿之氣. 其曾孫金公聞名久矣, 惜未見其集.’ 問, ‘耿耿之氣, 果是何語?’ 答, ‘耿耿者, 忠義不沒之氣也.’ 問, ‘忠義二字, 果何指的?’ 答, ‘僕在山東登州張孝廉家中見其遺集, 在瀋陽不屈記事詩甚好, 惜不復記憶矣.’ 問, ‘曾見全集否?’ 答, ‘只見一冊, 剝落不堪, 讀未審是全集否. 第載三韓叔度之集.’ 問, ‘淸陰全集為二十餘冊, 在此者恐是一斑耳.’ 答, ‘想是如此.’”

41) 李基憲, 『燕行日記』上. “問, ‘淸陰為明朝守節, 大國亦以為忠義乎?’ 答, ‘忠義不沒于天壤. 伊為明帝守節, 本朝獨不重此人乎?’ 問, ‘為本朝所重者, 只此一人乎?’ 答, ‘其餘不知.’”

상이 발견된다. 한문으로 작성된 연행록의 기록을 보면 제패련의 한문 실력을 극찬은 아니지만 文思가 있거나 문장에 제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글로 작성된 연행록에서는 오히려 제패련의 글씨는 대단하지 않고 글도 그리 특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같은 해에 연행길에 올라 같은 자리에서 제패련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제패련의 한문 실력을 다르게 묘사한 두 기록이다.

1793년에 三節年貢兼謝恩行의 부사 이재학과 수행원 이계호는 같은 해 12월 15일에 객사에서 제패련을 만나 필담을 했다. 그날의 장면은 이재학의 『燕行日記』에 한문으로, 이계호의 『연힝녹』에 한글로 기록되었다. 그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李在學『燕行日記』	李繼祜『연힝녹』
抵楡關, 止宿於廉姓人家. 地志云, "渝關以有渝水, 故名." 今稱楡關, 似以曰傳訛矣. 夜有齊生佩蓮者, 自道黃厓山人, 入居店北武黃庄. 而庚戌成進士, 年今三十七. 攜其所著文集來示之, 仍問近年往來使价之安信, 且言與耳溪洪尙書相厚. 蓋洪丈過此時, 見其文而題跋故也. 饋以酒果, **與之筆談, 頗有才思, 操筆成言. 又製五言一律, 於席上以示**, 故和韻贈之.[42]	쥬인의 드니 진ᄉᆞ 제픠련이라 제 문집을 가지고 왓거ᄂᆞᆯ 제목을 보니 황ᄋᆡ산인이라 ᄉᆞᆫ 글시사니 현 즁신이셰 홍판셔의 글시오. 글에 폄ᄒᆞᆫ 것도 다 그 즁신의 슈적이니 타국에 고인을 본 듯ᄒᆞ여 ᄆᆞᄋᆞᆷ의 심이 반기나 올젹 그 즁신의 편지ᄅᆞᆯ 밧다왓더니 유관이 즁노에 잇ᄂᆞᆫ 쥴 모로고 황셩 가물 짐에 너엇기 못 젼ᄒᆞ니 저도 극히 셥ᄉᆞ ᄒᆞ여 ᄒᆞ더라. 홍대신의 안부ᄅᆞᆯ 알고져 ᄒᆞ여 십니 젼도에 와 기ᄃᆞ리노라 ᄒᆞ고 우리나라 져샹을 무슈이 아라 안부ᄅᆞᆯ ᄃᆞ 무르니 이ᄂᆞᆫ 동국 ᄉᆞ름 ᄉᆞ괴기ᄅᆞᆯ 조와ᄒᆞᄂᆞᆫ 가시 부고 임의션라 ᄒᆞ기 부방에 고ᄒᆞ여 삼방과 모도여 **셔로 필담ᄒᆞᆯ ᄉᆡ 글시ᄂᆞᆫ 대단치 못ᄒᆞ고 글도 그리 금즉지 아니ᄒᆞ나** 붓대ᄅᆞᆯ 줌시 멈츄지 아니ᄒᆞ고 대담하여 풍월도 지어 화창ᄒᆞ니 입청삼삭에 쳐음으로 선뷔ᄅᆞᆯ 대ᄒᆞ니 도로여 신근ᄒᆞ고

〈표 3〉 李在學『燕行日記』와 李繼祜『연힝녹』의 내용 비교

42) 李在學, 『燕行日記』, 十二月十五日.

부사 이재학의 기록을 보면 제패련은 사뭇 才思가 있어 붓을 잡으면 금방 글을 지었고, 그 자리에 오언율시 한 시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는 이계호의 기록은 그의 글씨가 대단하지 않고 글도 그리 특별하지 않다고 묘사했다. 같은 장면을 다르게 서술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유를 밝히기 위해 먼저 그들의 신분적 차이와 한문 실력을 살펴봐야 한다. 이재학은 禮曺判書 李崇祐(1723~1789)의 아들로 1770년에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修撰, 敎理, 大司諫, 全羅道觀察使를 역임하여 刑曹判書에 이른 조선 후기의 문인이다. 이계호의 경우, 부사 李在學의 자제군관으로 중국에 간 사실만이 알려져 있다. 직위와 생애를 보면 이재학의 한문 실력이 이계호보다 훨씬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한글 연행록만 남긴 사실을 보아 이계호의 한문 실력은 그다지 뛰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일본 사신과 조선 사신이 필담할 때 혹은 조선 사신과 베트남 사신이 필담할 때 한문 실력을 다투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비추어 보면 한문 실력이 뛰어난 이재학은 제패련의 문장 재주를 칭찬한 반면 한문 실력이 비교적 낮은 이계호는 오히려 한문 실력이 다른 조선 문인들보다 못한 제패련과 문장의 우열을 비교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인이 아니지만 중국인보다 우수한 한문 실력을 갖춘 것은 자기의 한문 실력이 뛰어나다는 증거로 여겼을 것이다. 1801년에 서장관으로 중국에 들어간 이기헌 역시 제패련이 시에 능하고 술을 잘 마시며 긴 글도 비속하지 않다고(能詩善飮酒, 其長文亦頗不俗) 평가했다.[43]

한문 연행록과 한글 연행록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姜浩溥(1690~1778)의 한문 연행록 『桑蓬錄』과 한글 연행록 『상봉녹』, 洪大容(1731~1783)의 한문 연행록 『湛軒燕記』와 한글 연행록 『을병연행록』, 李義鳳(1733~1801)의 한문 연행록 『北轅錄』과 한글 연행록 『셔원녹』 등 한 작가가 쓴 다른 언어의 연행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같은 사절단으로 중국에 다녀와 다른 언어로 작성한 연행록을 비교한 선행 연구는 아직 없다. 이재학과 이계호의 이 사례는 한문 연행록과 한글 연행록의

43) 李基憲, 『燕行日記』上. “蓋齊之為人, 頗有騷氣, 能詩善飮酒, 其長文亦頗不俗. 酬酢之際, 至衣冠等句語, 輒執筆長歎, 可見其志槩也.”

다른 서술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리라 생각한다.

4) 청나라 문인과의 가문 교유 계승

18세기에 들어 화이론을 넘어 淸나라의 진보적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실학사상이 대두하자 연행길에 오른 조선 문인들이 청대 문인과의 교유는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8세기 이후에는 燕行에 있어 새로운 경향의 연행 방식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二代, 三代 혹은 數代에 걸쳐 청대 문인과 교유를 이어나가는 방식이다. 18세기 이후에 대를 이어 연행에 나선 가문은 徐命膺(1716~1787)에서 그의 아들 徐浩修(1736~1799)·徐瀅修(1749~1824), 손자 徐有榘(1764~1845)로 이어지는 達城 徐氏 가문, 洪大容(1731~1783)에서 종제 洪葆光, 손자 洪良厚(1799~1879)로 이어지는 南陽 洪氏 가문, 朴趾源(1737~1805)에서 손자 朴珪壽(1807~1877)로 이어지는 潘南 朴氏 가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여러 가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가문은 홍양호 가문이다. 조정에서 대제학을 지닌 홍양호를 비롯하여 아들 홍희준, 손자 홍경모·홍석모로 이어진 홍양호 가문은 연이어 사명을 받들고 정사, 부사로 연행길에 올라 외교활동을 수행하면서도 紀昀 가문·陳延恩(1799~?) 가문과 三代神交의 인연을 맺었다. 제패련과의 교유에 있어서도 이러한 三代神交의 인연을 잇고자 노력했다.

앞서 말했듯이 홍양호가 1782년 1차 연행 때 제패련과 처음 만나게 되어 그의 문집에 평점을 가하고 시를 지어주었다. 홍양호가 1794년 2차 연행 때 아들 홍희준이 자제군관으로 수행하여 중국에 함께 들어갔는데 이 만남은 三代神交의 계기가 되었다. 1794년에 홍양호가 유관에 도착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제패련을 만나 1차 연행 때 맺은 인연을 이야기하며 홍희준을 제패련에게 소개하였다.

> 지난 겨울에 객사에서 그대의 淸儀를 뵙게 되어 한밤중에 대화를 나누며 간담을 토로하였는데 사명의 수레를 멈추지 못하여 만남의 자리가 이별의 연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2월에 귀국하는 길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전과 같았습

니다. 인생에서 이별과 만남은 어찌 이와 같이 갑작스러운 것입니까?[44]

제패련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홍양호와 그의 아들 홍희준과 교유하고, 이별한 후에도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이 편지들은 모두 앞서 말한 『同文神交』에 수록되었다. 홍희준이 조선에 돌아온 후에도 친족이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가게 되면 제패련에게 편지를 보내어 만나자고 청했다. 그가 제패련에게 보낸 「제수재에 보낸 편지(寄齊秀才書)」에서 그의 從弟가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중국에 갈 때 객사에서 옛 친구의 얼굴을 만난 것처럼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다.[45] 같은 편지에서 홍양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다.

제패련이 1805~1815년 사이에 별세했기 때문에 홍희준이 1826년 2차 연행에서 제패련을 다시 만날 수 없었다. 홍희준의 아들 洪錫謨는 자제군관으로 수행하여 중국에 들어갈 때 제패련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시로 털어내었다.

楡關形勝似山陰,	유관의 경치가 산음과 같은데,
暎發峯巒媚客襟.	봉우리의 경치가 나그네 흉금을 달래네.
聞說黃崖阿弟在,	황애의 아우가 산다고 하니
燈前敘舊一樽深.[46]	등불 앞에서 한 잔 하며 지난 일을 나누네.

그러나 홍양호 가문이 중국인과의 三代神交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았다. 1782년과 1794년에 홍양호와 제패련이 서로 나눈 친분이 제패련이 죽은 후에도 1826년에 제패련의 아우인 齊治平이 찾아와 홍희준과 홍석모를 만난 것으로 삼대에 걸친 친교가 다시 이어졌다.[47]

---

44) 洪羲俊, 「與楡關齊秀才佩蓮書」, 『傳舊』四. "僕於曩冬旅舍, 幸接淸儀, 半夜雅話, 傾倒心肝, 征車不得留連, 而逢場翻作離筵. 仲春回路, 別思如前, 人生離合, 何若是倏忽也."

45) 洪羲俊, 「寄齊秀才書」, 『傳舊』四. "從弟翰林侍讀方以書狀官入邇賀正之班, 旅舍奉話, 如見故人之面, 何幸如之? 僕家大人近患重瘠, 屢月彌留, 今幸痊可, 而精力落下, 無由手書, 玆以替修尺素, 遙仲衷懷, 伏惟足下統照. 不宣盡禮."

46) 洪錫謨, 「宿楡關」, 『游燕藁』.

47) 洪錫謨, 「宿楡關」, 『游燕藁』. "黃崖齊秀才佩蓮居楡關, 王考壬寅甲寅之行相親, 而今已

Ⅴ. 마무리

이상 본고는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까지의 한문・한글 연행록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국 현전 문헌에서 보이지 않는 중국 지방 수재 제패련의 생애와 가족 경력을 재구성하고 아울러 조선 사신들과의 교유 경위와 필담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본고는 제패련과 조선 사신과의 교유를 두 가지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제패련의 입장에서 그가 조선 사신을 만난 이유를 (1)조선 문인에 대한 欽慕, (2)개인 문집을 위한 請序 및 評點, (3)스승 홍양호에 대한 敬仰, (4)한반도 특산품 청구 등 네 가지 주제로, 또 하나는 조선 사신의 입장에서 그들이 제패련을 만난 이유를 (1)중국 정치 현황과 중국 학술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 (2)조선 역대 인물에 대한 중국인의 평가, (3)필담을 통한 서로 한문 실력 검증, (4)청나라 문인과의 가문 교유 계승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기존 조청 문인 교유 연구는 조선 문인이 어떻게 중국 북경의 명사들과 사귀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학술적인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문화나 학술 사상을 받아들인 양상에 대한 고찰은 연행록 연구의 주된 흐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경 명사들만 있는 곳이 아니다. 북경에는 조선 사신들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청한 명사들이 있던 반면, 지방에는 조선 사신들과의 만남을 청한 수재도 있었다. 조선 사신들이 일방적으로 북경 명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방 명사들에게 영향을 준 것도 있다. 다시 말하면 연행록을 연구할 때 '북경 명사 → 조선 사신'의 관계를 넘어 '북경 명사 → 조선 사신 → 중국 지방 수재' 식으로 관계를 다원화시켜 연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해 '북경 명사 ↔ 조선 사신 ↔ 중국 지방 수재'와 같은 상호 영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된다. 제패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조선 사신이 일방적으로 중국 문인에게 교유를 청한다고 하는 기존 연행록 연구의 시각을 넘어, 양국의 문인이 서로 교유를 청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조청교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作故, 堂弟治平來訪, 以講舊好焉."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교유의 양상을 보다 입체적인 시각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북경 명사와 조선 사신, 그리고 중국 지방 수재의 이와 같은 관계 배열은 한문 실력과 조정에서의 영향력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이다. 조선 사신이 북경 명사를 적극적으로 만나 자신의 문집을 보여주면서 평점과 서발문을 청한 것은 제패련이 조선 사신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자신의 문집을 보여주면서 평점과 서발문을 청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중국 명사가 귀찮다는 이유로 조선 사신을 만나기를 거절하는 경우는 종종 보이지만, 같은 이유로 조선 사신이 중국 지방 수재와의 만남을 거절한 경우는 없었다. 어쩌면 자신이 중국의 권력 핵심인 북경의 명사임을 과시하려는 마음을 가진 일부 북경 명사보다 연행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했던 조선 사신들의 태도가 훨씬 유연성 있고 개방적이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조선 사신들이 개방적인 자세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에 접근하려 했다는 사실 역시 제패련의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앞으로도 제패련과 같은 사례를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중국 현전 문헌에서 보이지 않는 중국 문인의 생애를 재구성하면 조청교유 연구가 아니더라도 중국 지방 지식인들의 생활 양상과 문학 활동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고전문학 연구에 있어서 중국문학의 영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문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의 문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본고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둘째, 조선 사신과 적극적으로 교유했던 지방 수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북경 명사 → 조선 사신'의 일방적인 영향 관계를 넘어 '북경 명사 ↔ 조선 사신 ↔ 중국 지방 수재'의 다원화된 상호 영향 관계를 이론화시키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했듯이 조선 사신의 중국 문인과의 교유는 그 대상에 따라 교유 목적에 차이가 생기기도 하였다. 다양한 교유 목적으로 다른 계층과 신분, 여러 지역의 중국 문인과 교유하면서 중국을 이해하려고 한 조선 사신들의 태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연행록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參考文獻>

1. 資料

金正中,『燕行錄』, KRpia 燕行錄叢刊增補版.

吳載紹,『燕行日記』, KRpia 燕行錄叢刊增補版.

李繼祜,『연힝녹』, KRpia 燕行錄叢刊增補版.

李基憲,『燕行日記』, KRpia 燕行錄叢刊增補版.

李在學,『燕行日記』, KRpia 燕行錄叢刊增補版.

李海應,『薊山紀程』, KRpia 燕行錄叢刊增補版.

洪義浩,『澹寧燕行詩』, KRpia 燕行錄叢刊增補版.

洪錫謨,『游燕藁』, KRpia 燕行錄叢刊增補版.

洪良浩(1982),『耳溪洪良浩全書』, 民族文化社.

洪羲俊,『傳舊』, 서울대규장각 소장본.

『各省選拔同年齒錄』(乾隆54年己酉科),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소장본.

『同文神交』, 한국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中國社會科學院歷史硏究所淸史室(1981),『淸中期五省白蓮敎起義資料』, 江蘇人民出版社.

『山東通志』, 文淵閣四庫全書本.

임기중(2006),『연행록 연구(증보판)』, 일지사.

2. 論著

김영진(2011),「燕行錄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試論」, <대동한문학> 34, 대동한문학회.

譚妮如(2011),「李基憲『燕行錄』中之淸代中國形象」,『漢學硏究集刊』12, 雲林科技大學漢學資料整理硏究所.

裴英姬(2009),「『燕行錄』的硏究史回顧(1933~2008)」, <臺大歷史學報> 43, 國立臺灣大學歷史學系.

徐毅・李姝雯(2014),「論十八世紀中朝文人交遊的原因」, <東疆學刊> 第31卷 第03期, 中國延邊大學.

徐毅・千金梅(2012),「十八世紀中韓文人學誼的新見證 －『同文神交』」, <한자한문연구> 8, 한자한문연구소.

宋玉波・彭衛民(2014),「朝鮮燕行使節中華認同觀的遞嬗」, <西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05期, 中國西南大學.

王禹浪,・程功・劉加明(2012),「近二十年中國『燕行錄』研究綜述」, <哈爾濱學院學報> 第33卷 第11期, 中國哈爾濱學院.

劉婧(2013),「朝鮮典籍淸人序跋考論」, <대동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李學堂(2010),「燕行錄의 연구 현황과 전망 - 중국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50, 동방한문학회.

林侑毅(2015),『冠巖 洪敬謨의 淸代 文人과의 交遊와 燕行錄 硏究』,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한문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陳尙勝(2009),「近16年來中國學術界關於淸朝與朝鮮關係史硏究述評」, <當代韓國> 03期, 中國社會科學院韓國硏究中心.

陳俐(2016),「論淸代中朝文士筆談的主要特徵」, <대동한문학> 46, 동방한문학회.

이 논문은 2018년 2월 10일 접수되어 3월 10일까지 심사받아 3월 31일 발행

■ ABSTRACT

A Study of the Qing's Local Scholar Qi, Pei-Lian's Biography and His Exchange with Joseon Envoys by Yeon Hang Rok

LIN, YU-YI

After Qing Dynasty ruling Mainland China, envoys around East Asian countries were assigned to pay tribute to the empire. They not only conducted diplomatic tasks, but also absorbed Qing Dynasty culture/technology and collected situation information of Qing and surrounded country, whereby the Chinese culture circle, which is Qing Dynasty oriented, were formed. The phenomenon of Chinese culture circle seems a one-way acceptance, i.e., from surrounded countries to Qing Dynasty, since the empire had the advantage on diplomacy and culture. However, from the book Yeon hang rok(Book of travel to Qing), written by Joseon envoys, the cases of the reverse-way acceptance, i.e., from Chinese local scholars' active interaction with Joseon envoys, are not rare, which is the topic that worth paying attention among the Chinese and Joseon interaction.

Among those cases, Qi, Pei-Lian(齊佩蓮), the scholar born near Yu Pass (榆關) in the late 18th century, interacted with Joseon envoys through conversation by brush talk and chanting poems on the route from Joseon to Qing empire for about 20 times. The scholar interacted with 28 Joseon scholars, including Bak, Je-Ga(朴齊家)、Lee, hae-Ung(李海應)、Hong, Yang-Ho (洪良浩), which is not common in the society where Chinese culture were considered superiority. Qi, Pei-Lian realized that those Joseon envoys own solid Chinese ability and held a critical position in the government.

Therefore, it is worth to investigating on what is the motivation for Qi, Pei-Lian as he intended to interact with them and what is the motivation

Joseon scholars interact with Qi, Pei-Lia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background and meaning for the interaction between Chinese local scholars and Joseon envoys, and found out the purpose Qi, Pei-Lian interacted with Joseon envoys: 1). Admiration for the Joseon scholars, 2). Admiration for his teacher Hong, Yang-Ho(洪良浩), 3). Ask for comments to his literary collection, 4). Ask for the local specialities of Joseon. In the other way, the purpose Joseon envoys interacted with Qi, Pei-Lian could be 1). For the intelligence collection of Qing Dynasty, 2). To know Chinese scholar's comment on Joseon scholars, 3). Compare the ability in Chinese writing with each other, 4). To retain the interaction between Chinese family and Joseon family.

※ key-words: Qi, Pei-Lian(齊佩蓮), Hong, Yang-Ho(洪良浩), the Reconstruction of Biography, Chinese Local Scholars, Joseon Envoys, YeonHangRok